

## 이에스테크놀러지, 스마트조명 솔루션 개발

2018년 설립된 태양광·LED조명 전문기업 성장기 아이들에 '효과적'...수도권서 보급 활발



이에스테크놀러지의 스마트조명을 제어하는 모습.

충남 천안에 위치한 태양광·LED조명 전문업체 이에스테크놀러지(대표 강현주)가 스마트조명 솔루션을 개발해 교육 시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스테크놀러지는 최근 인천을 비롯한 지방 교육 기관에서 노후 조명을 스마트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스마트조명 설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스테크놀러지는 LED업계에서 10년 가량 종사한 강현주 대표가 지난 2018년 설립한 기업으로 LED조명, 스마트LED조명, LED바닥신호등, 태양광발 전설비 등 제조에 특화돼 있다. LED실내·외등 라인업을 모두 갖추고 있고 지난해 3월에는 여성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스마트조명은 에너지 절감 솔루션인 디밍(Dimming) 기능과 및 제어, 원격 제어 등 기능이 종합된 차세대 조명 제품이다. 특히 최근에는 조명의 색과 조도가 인체 건강 및 학습 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이어지며 학교 등 교육 시설에서 스마트조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 형광등이나 LED조명에 비해 에너지절감 효과가 탁월하면서도 빛으로 학생들의 수업집중력과 휴식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같은 추세의 원인이다.

실제로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스마트조명의 학습 능률 향상 효과를 높게 평가해 관할 소재 학교에 HCL 설치를 확정지었다. 음악실, 미술실, 상담실 등 특수시설에 800개의 스마트조명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스테크놀러지 또한 지난해 천안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 어린이집 시설에 스마트조명 300여개를 설치한 바 있다. 스마트조명을 통해 성장기 아이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수업 및 수면의 질을 높여 학습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스테크놀러지의 스마트조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습에는 높은 색온도와 조도가 적합하고 휴식과 수면에는 낮은 색온도와 조도가 적합하다는 연구에 착안해 빛환경을 변화시킨다.

▲수학, 과학 등 능력 향상에는 5000k~6000k의 밝은 및 ▲국어, 역사 등 능력 향상에는 4000k의 중간 및 ▲미술, 음악 등 능력 향상에는 3000k의 은은 한 빛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현주 이에스테크놀러지 대표는 "수도권 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스마트조명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수도권 학생들도 빛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스마트조명 보급을 늘릴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